

ACC

중 장 기 발 전 계 획 마련을 위한 공 청 회

2022. 9. 2.(금), 14:0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F, 강의실1



▶ YouTube 실시간 중계

발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토론 지정토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

■ 행사개요

- 일시 : 2022년 9월 2일(금) 14:00 ~ 16:00
- 장소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2F, 강의실 1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5길 30)
- 주최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진행방법 : 온·오프라인 병행(전당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중계)
[전당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ACC국립아시아문화전당>

■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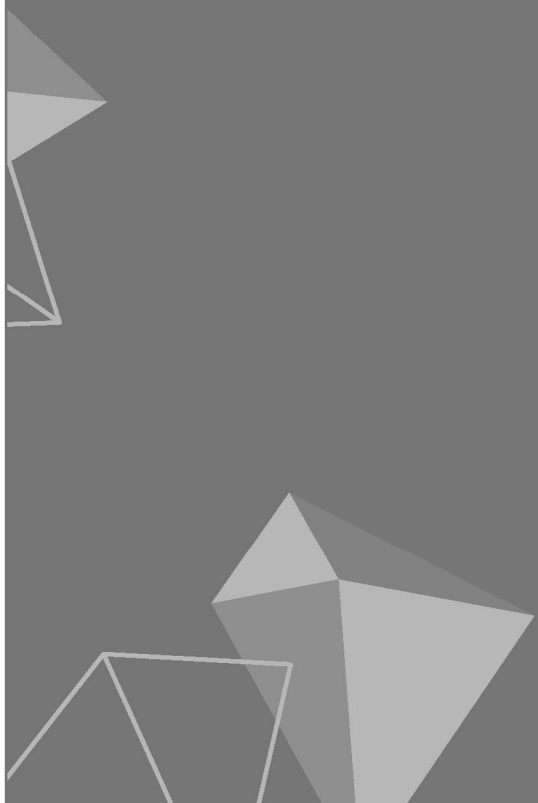
시간		내용 및 참석자
14:00 ~ 14:05	5'	[사 회] 행사 및 참석자 소개 - 장웅조, 홍익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4:05 ~ 14:10	5'	기관장 인사말
14:10 ~ 14:40	30'	[발 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14:40 ~ 14:55	15'	[토론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방향 -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14:55 ~ 15:10	15'	[토론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네트워크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0-26 예술감독, 아시아나우(AsiaNow) 대표
15:10 ~ 15:25	15'	[토론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헤리티지의 적용 - 이종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산업학과 교수
15:25 ~ 15:40	15'	[토론4] 문화예술 융복합의 개념과 융복합 콘텐츠의 의미 - 류승완 중앙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5:40 ~ 15:55	15'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5:55 ~ 16:00		폐회

[발 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박신의,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경희대학교 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기본방향

2022. 09. 02.

공 청 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목 차 c o n t e n t s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정책현황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안
	4. 분석결과
I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1. 아시아성의 의미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적 정체성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기조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1. 중장기 전략체계
	2. 영역별 세부추진과제(안)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2. 전당의 5대 핵심 운영방향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 2021년 9월, 통합전당 출범 이후 새정부 정책기조 및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종합계획과의 정책적 연동 필요
아문도시조성특별법 개정(21년 3월)에 따라 문화전당-문화원 추진체계의 일원화(21년 9월) 이후 전문인력 채용(22년 1월), 초대 전당장 임명(22년 2월) 등 후속조치 완비, 전당의 중장기 발전의 초석 마련
이후 새정부 정책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2022~2028)> 및 광주광역시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2023 연차별 시행계획>과 연동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맥락에서의 전당 성과 가시화 필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TF팀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2027 중장기 발전계획> 개발
전당은 '통합전당 출범',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 '지역사회와의 협력·상생', '개관 10주년 대비 기관의 방향성 정비'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TF팀을 구축하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2027 중장기 발전계획>의 토대를 개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직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체계화된 중장기 발전 계획 고도화 수요 형성

2) 연구목적

- 통합전당 출범 계기로 문화전당의 기관 비전, 핵심가치, 전략체계 등 재점검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 향유 방식의 변화, 문화기술(CT)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 수요 증가 등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통합전당의 핵심과제 발굴
기존 전당의 비전, 핵심가치 및 전략목표 분석을 통한 기관의 전략체계 재수립과 전당 운영체계의 공고화 및 안정성 강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TF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2027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 제고

I. 연구개요 2.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시간적 범위	2023년 ~ 2027년 (5개년)
공간적 범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전당로 38)
내용적 범위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2027 중장기 발전계획> 고도화 - 중장기 전략체계도(비전, 전략목표, 관리과제, 성과목표) 검토 및 우선순위 설정 - 중장기 전략과 연계된 중장기 인력·사업별 재무 운용 전략 - 국내외 문화예술기관 간 연계방안 모색 - 단기·중기별 콘텐츠 핵심테마 재검토 및 선정 등 ② 문화전당 개관 10주년 프로젝트 제언 ③ 내부직원·외부 전문가 참여 전국민 온·오프라인 공청회 개최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정책자료, 학술자료, 아티클 등 문헌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사례연구	•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의 교류의 실효성을 지닌 국내외 유사기관 탐색 및 핵심사업 검토
내부직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직원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의 타당성 강화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정책현황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안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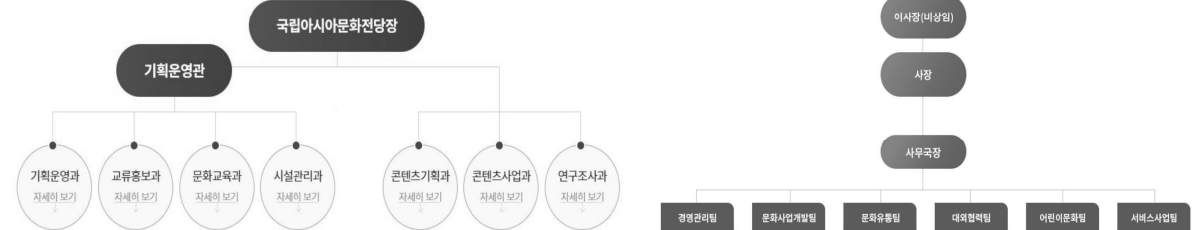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 개정(2021.03.)에 따른 기능 조정으로 아시아문화원을 해산하고, 국가기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일원화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법인을 설립(2022.01.). 재단의 수익 관련 유통업무 전담화를 통한 전당과의 협력 체계 지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조직유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책임운영기관)	조직유형	법정법인
직제	1전당장, 1관, 7과	직제	이사장, 사장, 사무국장, 6팀
인력	정원 122명(전문임기제 3명 별도) *공무직 336명	인력	정원 156명 (정규직 65, 공무원 31, 공무협업 61)
주요기능	- 아시아문화연구 및 자원 수집 관리 - 콘텐츠 창작 및 교류협력 - 전문인력 양성 - 문화전당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주요기능	문화상품 개발, 콘텐츠 활용·유통, 편의시설 운영 등 수익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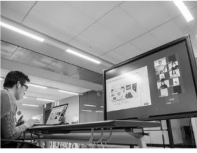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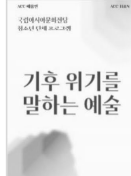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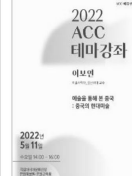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기획운영과	교류홍보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5개년(2021~2025) 계획 연구>, 2020 ACC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2020. 11.25. 14:0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6주년 성과 및 계획 공유, 2021	(공연) <오월어머니의 노래> 순회공연, 2022.05.07./05.14./05.18. (행사) 민주평화교류원 탐방 및 오월이야기 시민참여프로그램, 2022.05.~2022.06. (전시) 캄보디아 여성: 전통사회의 삶과, 크메르루즈 시대의 강제결혼, 2021.11.25.~2022.2.27.
주요 분장사무	주요 분장사무
- 주요 업무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시행 - 조직·정원 및 임용, 복무, 교육훈련 등 인사, 직원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 관련 - 문화전당 정책 연구 및 비전 수립에 관한 사항, 법령·규정 및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 문화전당운영자문위원회 운영, 책임운영기관제도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문화전당 통계 총괄 분석, 계약체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예산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및 국회·감사에 관한 사항 총괄 등 - 중장기 정보화 계획 수립과 전산시스템, 정보서비스, 전당 누리집 개발 등 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에 관한 사항 - 보안 등 비상계획 및 안전관리 총괄 사항 - 전당 공간 및 시설·장비 대관, 고객센터, 민원 및 고객만족도, 자원봉사자 운영	- 문화전당 국내외 교류·협력 중장기 및 연도별 계획 수립·시행 - 아시아 권역별 예술커뮤니티 구축 및 아시아문화교류 관련 - 문화전당 운영 관련 국제기구 및 지자체 등 국내외 단체·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문화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기획·운영에 관한 사항 - 민주평화교류원 운영 및 소관 공모사업 등 국내 교류협력 사업 관련 - 민주·인권·평화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관련 - 문화전당 온·오프라인 홍보 종합계획 수립·시행, 마케팅 프로그램 기획·운영,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유통 등 - 문화전당 회원제 운영 및 공간 활성화, 전당 활용 협조에 관한 사항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문화교육과				시설관리과	
					
<ACC 전문인 직군탐색 과정>, 2022 상반기 전시테크닉션·융복합문화기획자 교육과정 <ACC 인문강좌>, 동시대-문화예술-아시아 키워드 주제특강, 2022.04.				주요 분장사무 - 문화전당 시설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 문화전당 건물 및 시설물의 신·증축 및 개선(리모델링, 인테리어) - 문화전당 건축·토목·조경 시설물 유지·보수 등 관리 - 문화전당 시설물 안전계획의 수립 및 안전진단 - 문화전당 냉난방·환기·급수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관련 - 문화전당 실내 공기질·수질 개선 및 관리 관련 - 문화전당 전열·조명·정보통신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 관련 - 문화전당 방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관련 - 문화전당 소방안전 및 시설물 안전관리 관련 - 문화전당 내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에 관한 중장기 개선방안 수립 및 시행 - 문화전당 친환경 설비시스템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한 사항 - 문화전당 시설물 관리 위탁영역 운영 및 시설보호 - 문화환경개선(공공미술 포함) 및 공간디자인 관련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2020.04.~2021.02.	
<ACC 전문인 콘텐츠발굴·실행 과정>, 2022 5~6월 : 현장·콘텐츠 관련 이론교육 7~8월 : 실무 교육 및 우수 수료자 등 현장 인턴십 <ACC TEEN 문화예술교육> 기후 위기를 말하는 예술, 2022.05~2022.07. <ACC 테마강좌> 예술을 통해 본 중국, 2022.05. <온라인 문화예술교육>, 2020.04.~2021.02.				주요 분장사무 - 문화전당 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문화전당 교육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문인력 아카데미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 - 생애주기 문화예술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 교육사업 수입 관리 - 문화전당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 - 국내 문화예술 지원 공모 사업(교육) 및 오픈아카데미 운영 관련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요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사업

콘텐츠기획과		콘텐츠사업과		연구조사과	
					
(전시) 2021 ACC R 레지던시 결과발표전 <바이오펠리아, 그 너머>, 2022.04~2022.05. (전시) 20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융복합 콘텐츠 전시<자구의 시간>, 2022.07~2022.11.		(전시) ACC FOCUS <아쿠아 천국>, 2022.06~2022.09. (공연) <ACC 주요극장> '스윙', 2022.04.		(전시) 제주4·3 순회전시 <동백이 피었수다>, 2022.04~2022.06. (전시) 2022 한국민중미술 특별전 <다면체 미로 속의 진동>, 2022.06~2022.08.	
주요 분장사무 - 문화전당 공연전시 및 융복합 콘텐츠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문화전당 융복합 콘텐츠 연구·조사·기획에 관한 사항 - 문화전당 융복합 콘텐츠 개발·제작에 관한 사항 - 문화창조원·창제작센터 조성, 관리 및 운영 -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인력 교육 및 환경 지원 - 창제작센터 및 통발레지던시 사업 기획·운영 - 문화전당 융복합 콘텐츠 지식재산 관리 및 유통 관련 - 콘텐츠 및 상품가격 심의위원회 운영 및 재정자립도 제고 및 수익창출 전략 관련 - 국내외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관련 DB구축, 교류·협력 관련 - 아시아창작스튜디오 운영·관리 - 콘텐츠기획과, 콘텐츠사업과, 연구조사과 관사운영명비 출납 관련 사항 - 기타 문화창조원(복합12관) 및 창제작센터 이용 및 관리 관련 - 창제작 스튜디오 운영관리 및 대외 기술 및 시설장비 지원 관련		주요 분장사무 - 문화전당 공연·전시 기획·제작 및 연계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전당 콘텐츠(전시, 공연 등) 지식재산 총괄 관리 및 유통에 관한 사항 - 문화창조원(복합3·4·5·6관) 예술극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관 교류·협력 콘텐츠 공동 제작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전시 장비 및 수장고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공연장 시설 및 장비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무대기술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창조원·예술극장·문화정보원 전시콘텐츠 해설 및 도슨트 운영에 관한 사항		주요 분장사무 - 아시아 문화 관련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 아시아 문화 관련 자료수집·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조사·연구자료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아시아 문화연구·조사 관련 국내외 학술·교류 프로그램 운영 및 학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아시아문화 연구 관련 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문화정보원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콘텐츠 기획·운영 - 국립아시아문화전당도서관 및 아시아문화박물관 운영 관련 - 문화전당 및 아시아문화자료, 아카이브 기획 및 구축·운영 교육에 관한 사항, 문화전당 수장고 통합관리 - 기증 및 수증 자료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 아시아문화자료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이브러리파크 공간 운영, 활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관련 - 기타 아시아문화연구소·문화자원센터 운영 관련 - 기타 문화정보원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련 정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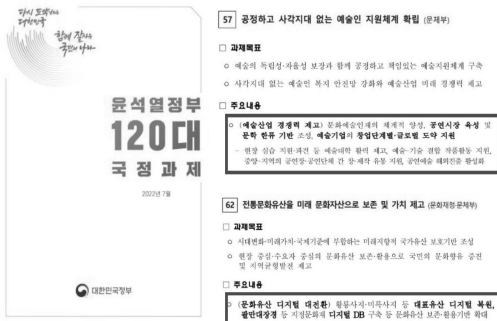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 예술·기술 융복합

문화예술인재의 체계적 양성, 공연시장 육성 및 문화 한류 기반 조성, 예술기업의 창업단계별·글로벌 도약 지원, 현장·실습 지원
 파견 등 예술대학 협력 제고, 예술·기술 결합 작품활동 지원,
 중앙·지역의 공연장의 공연장·공연단체 간 창·제작 유통 지원,
 공연예술 해외진출 활성화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

항공사·미륵사지 등 대표유산 디지털 복원, 팔만대장경 등
 지정문화재 디지털DB 구축 등 문화유산 보존·활용기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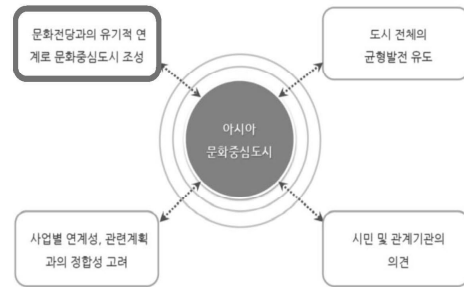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2022~20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세부과제

- ①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전당과 재단 역할분담 및 협업강화
- ② 예술·기술 융합 문화발전소 실현
- ③ 아시아 문화연구 강화 및 국제교류 다각화
- ④ 아시아 문화예술 선도기관으로 도약
- ⑤ 문화전당의 접근성 및 개방성 확대
- ⑥ 대외협력 및 지역사회 책임 강화
- ⑦ 옛 전남도청의 충실한 복원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2023 연차별 실시계획>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수립의 기본 방향



II.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안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TF팀 : 전당의 주요 현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TF팀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2027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전당의 주요 한계를 포착
- 해당 자료를 통해 포착된 한계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으로, '방향성 수립', '지역사회와의 소통', '정책환경 대응', 콘텐츠의 난해성,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 등을 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TF팀 : 전당의 주요 한계

중장기 전략 부재로 인한 전당 사업의 방향성 표류

- 조직의 이원화 구조, 불안정성, 공무원 순환 보직 등 기관 내부 요인으로 인한 구성원 간 합의된 기관의 비전, 전략체계 확립 미비
- 기관의 중장기 전략 부재로 연구·조사, 국내·외 교류, 전시·공연, 창제작 등 다양한 기관 사업의 중장기 방향성 표류, 체계화된 연차별 계획 수립 미비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부족

- 비대면 예술 창작·향유 증가, 아시아 문화예술 교육 확대 등 건립 당시와 다른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 및 장비, 전문인력 확보 필요
- 향문·향습 시설을 갖춘 전시관과 수장고, 전문교육 공간 및 장비,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 등 인프라 부재로 시대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기관 운영 및 사업 범위 확장 곤란

非수도권 소재 국립기관으로서의 관객 확보·홍보의 어려움

- 문화예술 생산자·향유자의 절대 다수가 서울·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실적

전당 콘텐츠의 난해성으로 인한 기관 지지층 확보의 어려움

- 아시아적 주제 전문적인 콘텐츠 위주 구성으로 인해 전당 콘텐츠의 소구력 확보가 어렵고, 지역사회의 지지도부터 멀어지는 결과 초래
- 전당이 창·제작한 콘텐츠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내용, 성과를 관람객이 항상 향유할 수 있는 향유체계(상설 및 온라인전시관 등) 부재

기관 본연의 미션·고유 기능과 지역사회 요구 간 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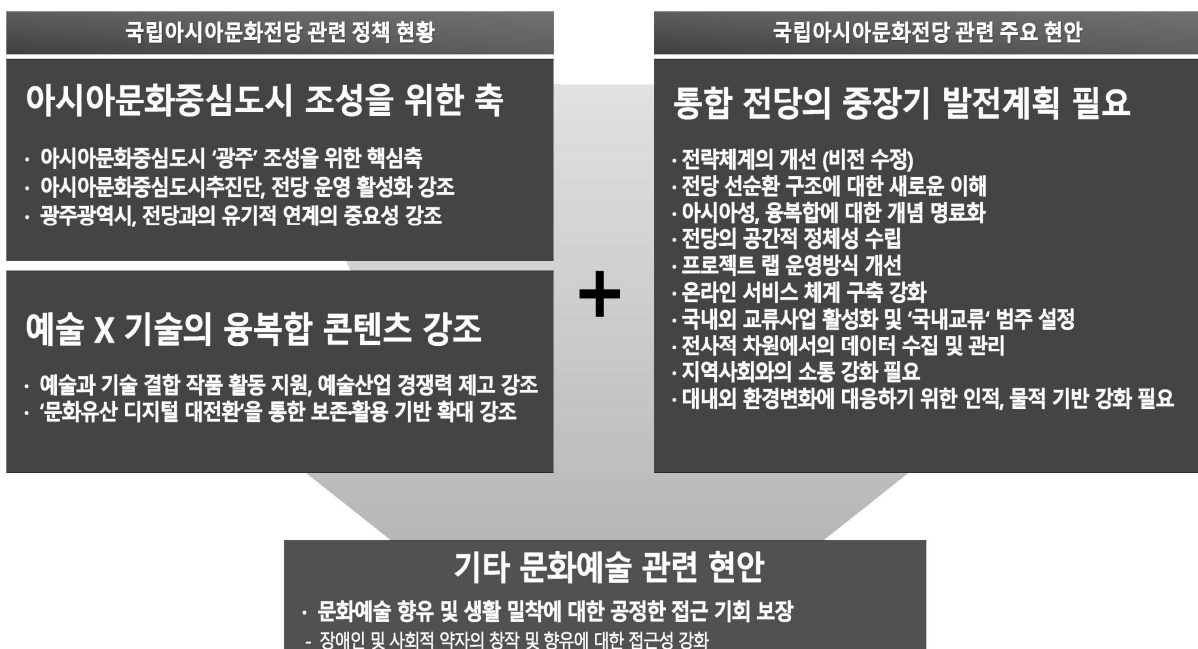
- 지역소재 기관 특성 상, 지역사회의 지역 협력 및 지역성 강화, 킬러 콘텐츠 개발에 대한 요구로 전당 본연의 미션인 아시아적 확립, 창·제작 강화에 집중 곤란
- 국제적 문화예술 플랫폼을 지향하는 국립기관으로서의 미션수행에 역량을 집중함으로 인해 지역사회, 지역 문화예술 단체와의 적극적 연계·협력, 소통 노력 부족
- 조성 거버넌스(문체부·조성위·광주광역시·시민사회) 간 연계·협력 부족, 전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에너지 발산, 지역경제 및 문화예술 영역에 기여 노력 부족

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안

2) 내부직원 의견수렴 :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 전당 내부직원 FGI>

내부직원 FGI 개요				주요내용
행사명	중장기 발전계획 관련 전당 내부직원 FGI			(미션 및 비전) 전당 정체성에 기반한 내용으로 새롭게 기술 필요
일 시	2022년 7월 18일(월) 14:00 ~ 16:45 (165분)			(선순환) 장·제작·유통 구조 및 핵심테마에 따른 부서 간 협력관계
장 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회의실			(랩 Lab) 프로젝트 개발 및 실험 중심 인큐베이팅 기능 강화 및 브랜딩
참석자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교류홍보과	각 과 과장 및 주무관, 학예연구사	(융복합) 기술에 대한 다학제적이고 인문적 성찰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
		문화교육과		(유통) 온·오프라인 전시 및 공연, 콘텐츠 서비스 체계 구축 강화 필요
		콘텐츠기획과		(교육) 전문인력양성사업 핵심 및 교육사업의 정체성 강화 필요
		콘텐츠사업과		(교류) 국내외 교류 활성화 방안 모색 및 '국내교류의 범주' 설정 필요
		연구조사과		(데이터) 전사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체계화 필요
		기획운영과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 연구소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소장	박 신 의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디렉터컨설턴트	심 준 식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 원 재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원	김 도 경	

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현황분석 4. 분석결과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1. 아시아성의 의미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적 정체성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기조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1. 아시아성의 의미

1) 아시아의 어원과 개념

- 타자에 의해 규정된 아시아
 - 아시아의 어원은 아시리아어 ‘Acu(해 뜨는 나라)’의 뜻에서 유래되어 ‘Ereb(해지는 나라)’에서 유래된 유럽(Europe)의 동쪽 의미
 - “아시아는 유럽이 자기를 표상하고 유럽을 다른 지역과 구별하기 위한 용어였다. 아시아란 무엇보다도 유럽이 자기를 규정하는 데 필요했던 것이었다”(사카이, 2006: 31)
- 근대화의 대상으로서 간주되어 온 아시아
 - 근대 유럽 학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시각은 ‘서구화(Westernization)’의 대상, 즉 근대화를 위한 대상으로서의 인식의 당위성 부여
 - 서구는 아시아를 ‘미개발’, ‘저개발’, ‘개발도상’ 상태의 제 3세계로 간주하고, 사회·문화·종교·언어·과학기술·경제 등에서 우월성 강조

유럽 학자들에 의한 아시아의 이해 (김경동, 2011)	
구분	내용
제임스 밀 (James Mill)	· 인도의 전통과 문화를 완전히 원시적이며 미개한 것으로 열시 · 대영제국의 자비롭고 개혁적인 행정으로 근대화 필요
존 스튜어트 밀 (John Stuart Mill)	· 전제적인 관습의 장애, 중국인의 심성이 편측처럼 뻣들어져.. · 낡은 사회구조를 파괴하고 유럽의 원리대로 재건하는 것이 필요
헤겔 (Hegel)	· 역사적 기회의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규정 · 아무런 진보도 이룩하지 못하는 비역사적인 역사로서의 동양 이해
마르크스 (Marx)	· 인도는 알 수 있는 역사가 없다 · 중국은 흐르는 시간의 의식이 없는 나라다
막스 베버 (Max Weber)	· 근대화본주의 형성에 필요한 합리화와 합리성의 전제가 부재 · 사회적 친교 맺기를 위한 경험 결여

유엔 아시아 지역분류체계	
구분	내용
중앙아시아 (5)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동아시아 (5)	대한민국, 일본, 중국, 대만, 몽골
동남아시아 (11)	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서아시아 (14)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남아시아 (8)	네팔, 몰디브, 방글라데시, 부탄, 스리랑카,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1. 아시아성의 의미

2) 아시아에 의한 '아시아적 가치' 탐색

- 탈오리엔탈리즘적 시각 형성과 아시아적 가치의 강조
- 탈냉전 이후 세계화와 지역화의 변화는 서구사회에 아시아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 대한 비판적 성찰 형성
- 서구사회에 의해 타자화되어 해석되고, 규정되어온 아시아는 스스로의 가치를 발굴하고 담론을 형성하기 시작

아시아의 근대화 초기 : 학문적 제국주의와 종속성 존재

아시아의 신속한 발전을 위해서는 서방의 문물을 그대로 모방하고, 근대화를 저해하는 전통을 버려야 한다

아시아의 근대화 이후 : **아시아적 가치** 탐색

서방의 표준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아시아에 강요해서는 안되며, 사회의 전통적 문화지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아시아적 가치(Asian Value) 논쟁

- '아시아적 가치'란 개인보다 공동체를 우위에 두는 것, 가족에 대한 충성, 교육에 대한 몰입, 합의적 통치, 질서와 안정 등을 강조하는 것(김성건, 2011)
- 아시아 정치권에서 국가의 통치에 관한 한 서방의 표준과 가치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라는 관점
- 아시아적 가치의 핵심적 논지는 민주주의가 아무리 보편 가치라 해도 개개 사회의 전통적 문화 지향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
- 리관유는 민주주의가 서구의 시스템으로 아시아에 부적합하다는 관점으로 권위주의적 통치의 필요성을 강조, 한편 김대중은 아시아에도 보편적 민주가치가 있음을 주장하며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 설파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1. 아시아성의 의미

3) 동시대 아시아성의 의미

서구에 의해 타자화된 아시아 : 오리엔탈리즘

다양성(Diversity)

- 아시아를 규정하려는 사람에게는 그 대륙의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다양성'을 배제하고 논의를 펼칠 수가 없음
- 특히 아시아는 하나가 아니라 둘, 셋, 넷 혹은 더 많은 아시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 존재
- 예컨대 동남아 지역은 경제수준, 정치체제, 문화/종교 등에서 다양성과 혼종성이 두드러지는 특징 보유
- 아시아를 하나의 단일한 현상 또는 개념으로 규정 불가

대안적 가치(Alternative Value)

- 오리엔탈리즘, 유럽중심주의의 시각으로부터 벗어나 아시아에 대한 재인식 필요
- 여기서 강조되는 대안적 가치는 두 차원에서의 의미 내재
 - ① 서구에 의한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규정되어 왔던 아시아에 대응하여 아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
 - ② 서구에 중심의 세계질서(정치, 철학 등)에 대한 대안적 가치
- 동시대 글로벌 현안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접근 제시

아시아성(Asianess)

'아시아성'은 서구에 의해 수립된 근대적 위계, 합리주의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공존하고 연대할 수 있는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내포

즉 '아시아성'은 대안적 가치로서 신냉전, 기후위기 등의 동시대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관점이자 실천력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적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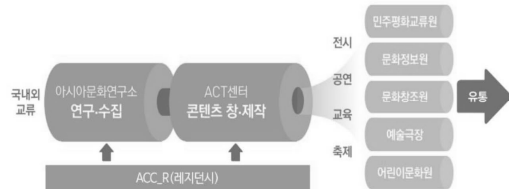
1) 복합문화예술공간의 이해

프랑스 : Centre Pompidou (1977)	독일 : ZKM (1989)	오스트리아 : Ars Electronica (1979)
다양한 장르와 시설을 수용한 병렬적 구조의 복합예술문화공간	기획·창작·교육·연구·산업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바우하우스	장르 간 접목의 활성화 및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퓨처랩 운영
- 국립현대미술관, 공공정보도서관(BPI), 현대음악연구소(IRCAM)를 중심으로 아카이브, 산업창작센터, 어린이미술관, 풍피두센터학교, 영화관, 갤러리, 공연장, 스튜디오 등 시설 보유 - 1977년 개관 당시 복합문화공간의 실험적 모델로 간주, 21세기를 지나면서 점차로 디지털 기능 수용 아래 '융복합' 의미 구현 - 복합학문적 시각과 장르별 선순환 체계, 온라인 콘텐츠 중심의 융복합 개념 제시	- 예술창작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전시, 수집, 실험과 제작을 중심으로 사회와 기술의 연계, 산업과의 협업, 네트워크를 구현하는 디지털 바우하우스 지향 • (참고) 헤르츠랩(Hertz lab) 운영 - 미디어아트와 과학, 사회에 대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예술적 산물과 기술 연구를 결합하는 시도를 주도. AR, VR, 인공지능, 몰입형 콘텐츠 개발 영역에서 예술적 접목을 시도함으로써 창의성에 기반한 창작물에 집중	- 예술과 기술, 사회에 주목하여 미래의 핵심 문제 해결을 모색, 특히 기술 그 자체 보다 기술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여 '디지털 휴머니즘'에 대한 기여를 지향 • (참고)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퓨처랩 운영 - 레지던시 작가 및 다양한 전문가가 참가하는 랩 운영을 통해 인간과 기술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cyberarts의 다양한 실험을 주도하고, 기업 결합으로 통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주도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공간적 정체성

2) 전당 선순환 구조의 재이해

기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표방해 온 선순환 구조 : '선형적 인과관계'



내부직원 의견 : 선순환 구조의 한계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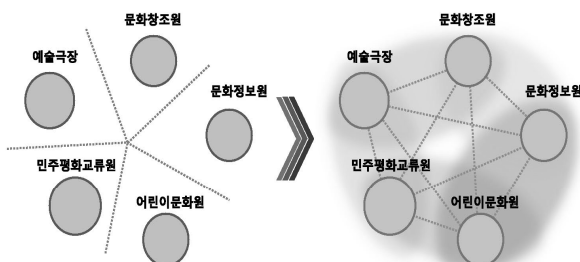
개별 부서가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단년도 사업 운영에 매몰되게 하고, 이로 인해 부서별로 파편화 되어 선순환 체계의 작동에 한계가 따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5개년 계획 연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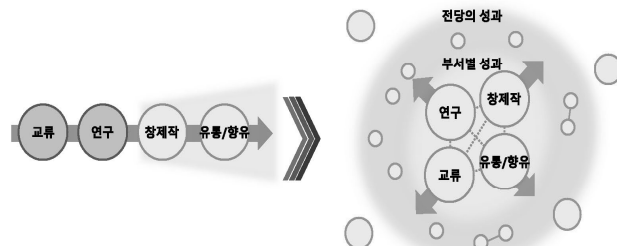
부서별 업무 성격에 따라 사업성과 도출의 시간적 차이 존재로, 선순환 체계 작동에 한계 존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내부직원 인터뷰(2022.07.18.)

병렬적 복합문화예술공간에서, 상호협력을 내재한 융복합 공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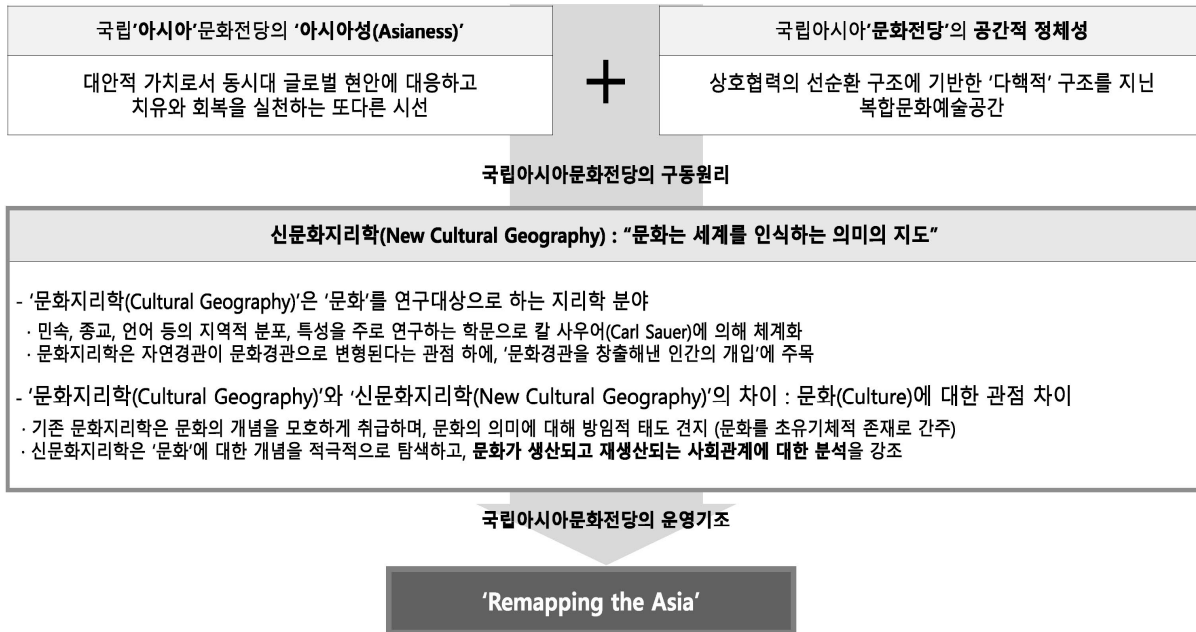


선형적 인과관계의 선순환에서, 다핵화를 통한 가치적 선순환 구조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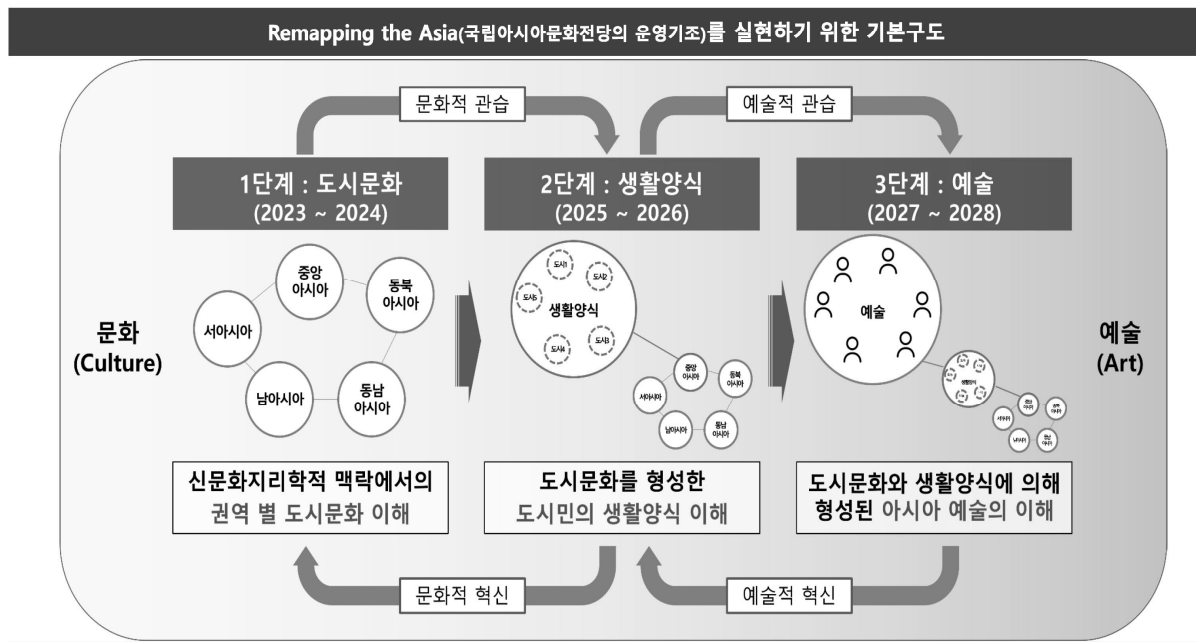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기조

1) 기본방향



Ⅲ.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구도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기조

2) 기본구도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1. 중장기 전략체계
2. 영역별 세부추진과제(안)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1. 중장기 전략체계

1) 기존 전략체계 분석

국립아시아문화전당 TF팀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023-2027 중장기 발전계획>의 전략체계

미션	아시아 동시대 문화예술 교류와 창조의 플랫폼			
비전	아시아 문화 교류·연구 기반 창제작을 선도하는 세계 수준의 문화예술기관			
전략목표	세계 수준의 창·제작 선도 문화예술기관	아시아 문화 교류협력의 기지	지역사회 교류 네트워크 거점 기관	복합문화예술기관 조직역량 강화
추진과제	• 융복합 콘텐츠의 산실 • 콘텐츠 창제작 원천의 인큐베이터 • 국제적인 창제작과 교류의 플랫폼 • 융복합 문화예술교육 선도기관	• 아시아 문화교류의 플랫폼 • 아시아 유관기관 연계·협력 • 아시아 지역 문화 ODA 사업 다각화	• 지역사회 연계·협력 • 지역 문화예술 창작·향유 플랫폼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 고객데이터 기반 홍보·마케팅 강화 • 고객 중심서비스 강화 • 국립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 제고

(미션·비전) 비전의 수정·보완 필요 : 현행 비전은 미션에 준하는 내용으로 작성, 신규 비전은 미션에 기반하여 전당의 미래상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완 필요

(전략목표) 활동목표를 기술하는 방향으로 수정 필요 : 현행 전략목표는 '시설'로서의 기능을 반복, 신규 전략목표는 미션·비전과 연동되는 활동목표 제시 필요

(추진과제) 신규 전략목표와 연동되는 추진과제로 재설정 필요 : 일부 전략목표와 상충되는 성격을 보이는 추진과제의 한계 개선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1. 중장기 전략체계

2) 신규 전략체계 제안을 위한 '영역' 설정

- 전략체계에서 '영역'의 의미
 - 전략체계 내에서 '영역'은 조직이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범주를 의미
 - 전략목표와 추진과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작동되는 지 가시화하고, 전략목표와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간의 관계를 명료화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략체계에서의 '영역' : 8개 영역 제안
 -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영역은 전당의 주요사업 내용에 근거하여 포착하고, 8개로 영역으로 제안
 - 각 영역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여 영역별 의미를 명료화

영역	내용
연구(조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 콘텐츠 원천소스 마련을 위한 사업
창·제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생산을 위한 사업
교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지역-국가-세계' 단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사업
유통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 연구 및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
향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용자의 예술·콘텐츠 감상 및 학습을 위한 사업
홍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외 인지도 및 재방문을 제고를 위한 사업
조직 역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내적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사업
서비스 역량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1. 중장기 전략체계

3) 신규 전략체계 제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을 위한 신규 전략체계(안)

미션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와 창조를 주도하는 창의플랫폼
비전	문화·예술·기술·사회의 융복합을 통한 아시아성의 전지구적 확산

영역	교류	연구(조사)/창·제작	유통/향유/홍보	조직/서비스역량
전략목표	'지역-국가-세계' 단위 네트워크 기반 강화	아시아 연구 및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아시아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이해 제고	복합문화예술기관 조직·서비스 역량 강화
추진과제	• 아시아 문화교류의 글로벌 거점 역할 강화 • 지역사회 및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업협력 확대	• 아시아 콘텐츠 원천소스 수집·생산 •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 전당의 아시아 콘텐츠 성과 확산 • 이용자 친화적 아시아 콘텐츠 서비스 확대 • 전당의 인지도 및 재방문을 제고	• 전당 조직의 내적역량 강화 기반 확보 • 이용자의 전당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2. 영역별 세부추진과제(안)

1) 교류

전략목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지역-국가-세계' 단위 네트워크 기반 강화	(국제교류) 아시아 문화교류의 글로벌 거점 역할 강화	① 전당의 국제교류 전략 수립
		② 아시아 문화교류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
		③ 아시아예술커뮤니티 확대 및 협력 활성화
		④ ACC형 특화 ODA 개발·운영
		⑤ '지역-아시아' 교류·협력 프로그램 확대
	(국내교류) 지역사회 및 국내 유관기관 협업·교류 확대	① 전당의 국내교류 전략 수립
		② 지역사회와의 협력 기반 마련 및 협력사업 개발·운영
		③ 국내 유관기관 교류 기반 마련 및 교류사업 개발·운영
		④ 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당 자원 개방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2. 영역별 세부추진과제(안)

2) 연구(조사) / 창·제작

전략목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아시아 연구 및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활성화	(연구(조사)) 아시아 콘텐츠 원천소스 수집·생산	① 전당의 연구조사 전략 수립
		② 전당의 국내·외 연구 협력체제 구축
		③ 아시아 국가별·전문주제별 아카이브 자료의 전략적 수집
		④ 글로벌 시대의 비교연구 조사 강화
	(창·제작)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① 전당의 창·제작 전략 수립
		② 전당의 창·제작 인프라 확장
		③ 프로젝트 랩 및 레지던시 창·제작 역량 강화
		④ 현장 중심의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⑤ 아시아성 X 문화기술 융복합 콘텐츠 개발
		⑥ 동시대 아시아성을 발굴하는 공연·전시 콘텐츠 개발
		⑦ '민주, 인권, 평화' 주제의 콘텐츠 개발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2. 영역별 세부추진과제(안)

3) 유통/향유/홍보

전략목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아시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이해 제고	(유통) 전당의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관련 성과 확산	① ACC 메타버스 구축
		② 국제적인 융복합 축제 개최
		③ 아시아문화연구 아카이브 체계화
		④ 공연 및 전시 인프라 체계화
	(향유) 이용자 친화적 아시아 콘텐츠 서비스 확대	① 문화예술 회복탄력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② 이용자 수요에 기반한 공연·전시 개최
		③ ACC형 문화예술교육 운영
		④ 온·오프라인 교육플랫폼 구축·운영
	(홍보) 전당의 인지도 및 재방문을 제고	⑤ 전당의 브랜드 정책 수립
		⑥ 데이터 기반 고객 중심 마케팅 전략 수립
		⑦ 대국민 통합 커뮤니케이션 체계 구축

I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전략체계 및 세부추진과제 2. 영역별 세부추진과제(안)

4) 조직/서비스 역량

전략목표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
복합문화예술기관 조직·서비스 역량 강화	(조직 역량) 전당 조직의 내적역량 강화 기반 확보	① 전당 선순환 구조의 개선
		②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③ 전사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④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⑤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및 체계 마련
		⑥ 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
	(서비스 역량) 이용자의 전당 접근성 및 만족도 향상	① 전당 통합 안내체계 구축
		② 전당 홈페이지 고도화
		③ 고객 지원 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서비스 고도화
		④ 무장애 관람환경 구축 및 접근성 강화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2. 전당의 5대 핵심 운영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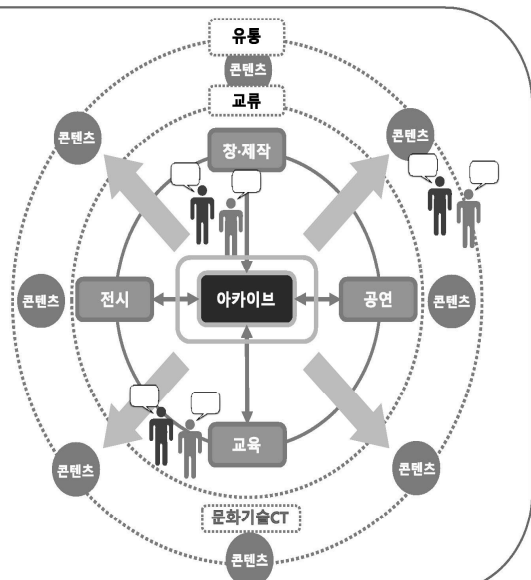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정체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기관 정체성

문화예술시설의 새로운 패러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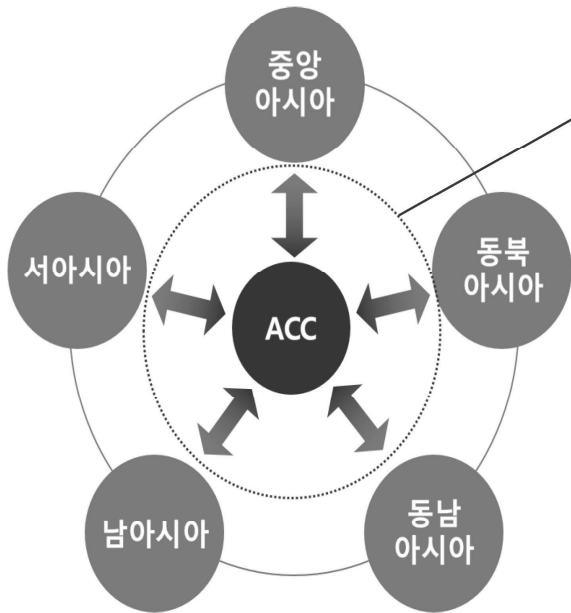
- **온·오프라인 병행구도 활성화**
 - 온라인 콘텐츠의 용이한 접근성과 참여 활성화
 - 온·오프라인 병행 및 유기적 연결에 따른 전방위적 콘텐츠 확산
- **플랫폼 기능을 통한 참여와 상호작용**
 - 모두에게 개방된 문화예술 플랫폼으로서의 문화예술공간
 - 생산자와 향유자 간의 상호작용과 피드백 축적
 - 문화향유 방식의 전면적 전환과 참여와 소통구조 생성
- **문화자원 활용 융복합 콘텐츠 개발**
 - 예술, 문화유산 등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 NFT 문화유산 적용
- **이용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 빅데이터에 기반한 고객 취향 분석 및 추천
 - 관객 세분화를 통한 접근전략 고도화 및 새로운 관객개발

참여,
소통,
상호작용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2. 전당의 5대 핵심 운영방향

1) 아시아 네트워크 거점 역할 강화



아시아 권역 '예술커뮤니티' 확대 및 협력 활성화

- 기존 3개 권역(중앙아, 동남아, 남아시아) →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신규권역 추가
- 권역 확장에 따른 분야 확대 : 스토리텔링, 전통음악, 무용 → 미술, 영상, 패션 등
- '예술커뮤니티'를 통한 협력을 통해 '아시아성' 발굴 및 '아시아성'에 근거한 콘텐츠 확보

국제 문화예술관련 협회, 기관 및 민간조직과의 협력채널 확대

- 공연, 전시 분야 국제협회 가입, 정기총회·아트마켓 등 참여를 통한 정보 공유
- 국제적인 공연, 전시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콘텐츠 공동제작
- 국제교류 경쟁력, 노하우를 보유한 국제교류 전문 민간기관과의 협력 관계 구축

ACC형 특화 ODA 강화

- 전당의 주요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개도국의 문화기반 지속가능 발전 지원
- 광주 지역 ODA와의 연계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한 자원확보 및 효율성 강화
- 장기적으로 공모사업 형태가 아닌, 전당 자체 기획을 통한 직접사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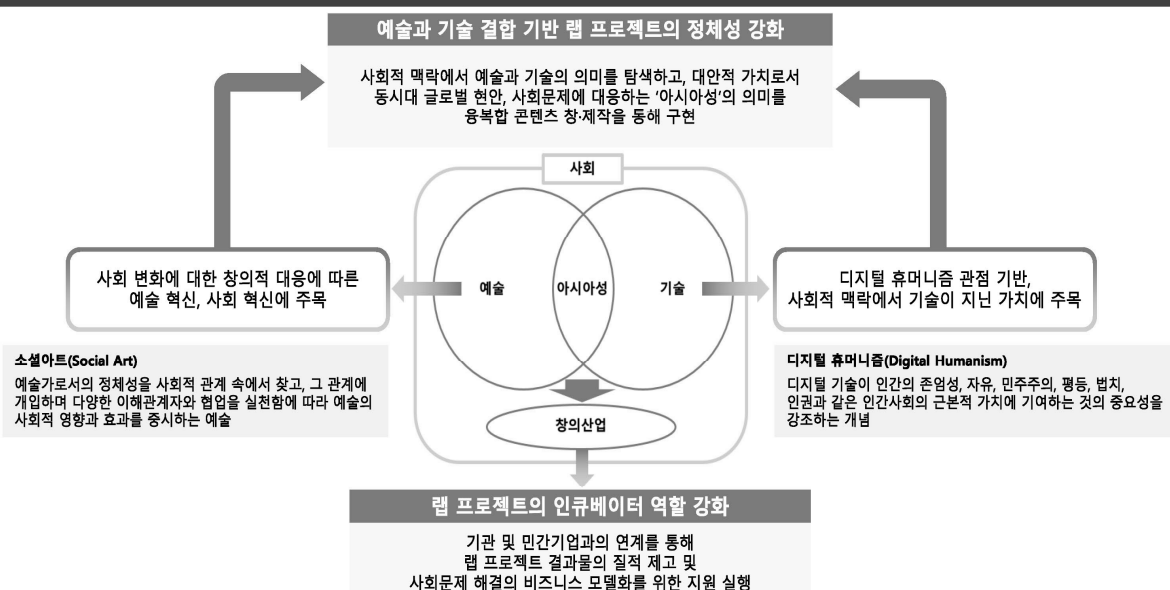
전사적 차원의 국제교류 정보 수집·관리 및 지원

- 부서별 사업 추진으로 확보된 교류기관 및 사업정보의 수집을 통한 DB 구축
- 부서별 사업 추진을 위한 국제, 국내의 활동 지원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2. 전당의 5대 핵심 운영방향

2) 랩 프로젝트(ACC 랩)의 기능 체계화 및 활성화

랩 프로젝트의 기본구도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2. 전당의 5대 핵심 운영방향

3) 아시아성 가치 확산



· 【참고】 아시아 국가 간 문화다양성의 이해를 전제로, '아시아성'의 발굴과 확산 모색

- 아시아성(Asianess)은 '인류문명에 대한 대안적 가치로서 동시대 글로벌 현안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응하는 또 다른 시선'을 의미
- 서구에 의해 수립된 근대적 위계, 합리주의에 대한 맹목적 믿음으로부터 탈피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공존하고 연대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내포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2. 전당의 5대 핵심 운영방향

4) 관객개발 역량 강화를 통한 고객중심 경영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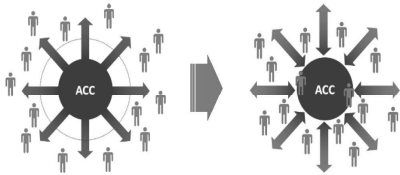


영역별 세부방향	
향유	온·오프라인 병행구도의 향유 방식에 따른 체형 확대 및 문화예술교육 효율화
홍보	인지도 및 재방문을 제고, 문화 생산자로서의 관객 개념 기반 홍보 고도화
조직역량	관객 연구 및 데이터 활용방안을 통한 고객 서비스 역량 강화
서비스기능	데이터 기반 수요 관측에 따른 전당 이용자 편의성 및 전문성 제고

V.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핵심 운영방향 2. 전당의 5대 핵심 운영방향

5) 지역사회와의 협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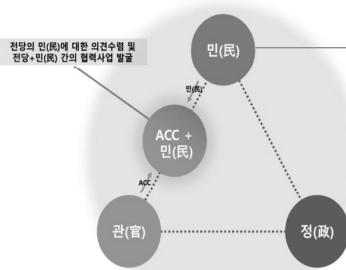
지역사회를 전당 운영의 '협력적 파트너'로서 인식



- 전당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광주광역시에서의 존재론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지속화
- 그럼에도, 지역사회와의 관계형성 시 지역민을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야 할 향유 서비스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 존재
- 이에, 전당은 지역사회와의 관계 형성 시, 완성된 콘텐츠를 서비스해야 할 대상이 아닌, 함께 협력하여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로 인식 필요
-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민관 협력체계는 전당의 기관 정체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문화예술의 담론을 풍성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기조로 제시

민관협력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및 민주·인권·평화 주제 글로벌 및 시민참여형 콘텐츠의 고도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을 위한 맥락



· 시민사회 - 민주·인권·평화의 생활 친화적 해석과 스토리텔링 생성
· 예술계 - 예술을 통한 다양한 아시아 가치 담론 생성과 지역특화 예술적 성과물 축적
→ 지역사회 가치가 아시아 가치로

(예시) 캐나다 인권박물관 <SHARE YOUR STORY>

Human rights stories are all around us. We'd like to hear yours.

Record a short video about your experiences to help us document and reflect on these changing times. See all the stories people have shared below.

- 민관협력을 통한 민주·인권·평화 주제 관련 사업의 생활친화적 접근성 강화 모색
- 민주·인권·평화의 가치에 대한 '동시대적 해석' 및 관람객 및 참여자 '개인의 삶 속에서의 이해'의 계기 마련
-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민주·인권·평화에 가치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확산하여 공감대 확대
- 예컨대, 관람객에게 민주·인권·평화의 의미를 질문을 하고, 답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여 다양한 이해의 계기 형성

후속 연구계획

'ACC소통포럼' 및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 8월 30일 <ACC 소통포럼>을 통한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 9월 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통한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
-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한 연구 내용의 질적 보강 실행

중장기 발전계획의 세부추진과제 구체화 및 중장기 로드맵 제시

- 신규 전략체계에 기반하여 도출된 세부추진과제의 내용 구체화
- 구체화된 내용을 연구보고서 내 반영, 향후 전당 내 실무진의 사업 설계 및 실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중장기 발전계획연구 계약기간 : 5월 25일부터 ~ 11월 20일까지

추진 기간 분야 · 항목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15	16~30	1~15	16~30	1~15	16~30	1~15	16~30	1~15	16~30	1~15	16~30
환경분석 및 운영방향												
중장기 전략체계												
ACC 소통포럼						30일						
전략목표별 세부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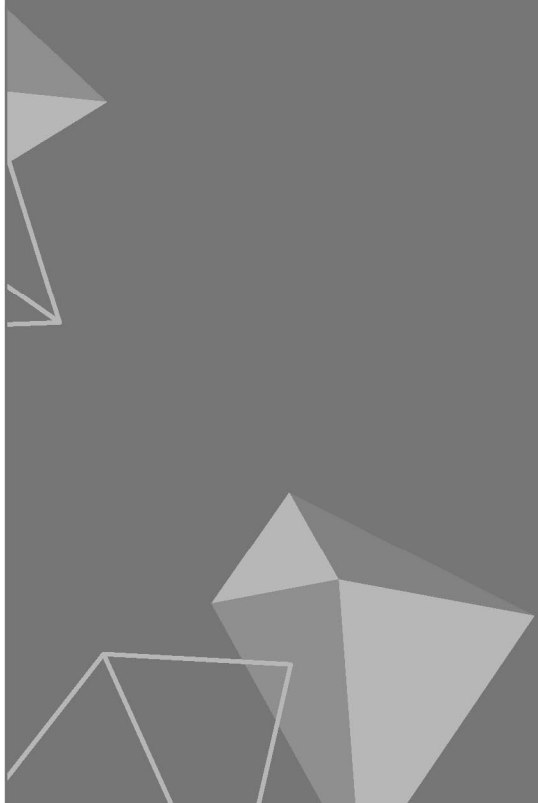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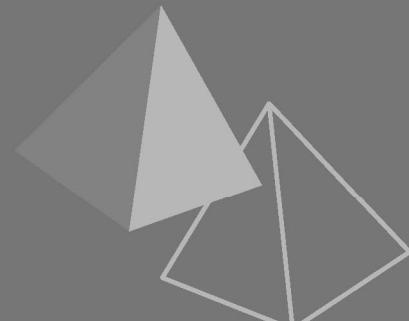
감 사 합 니 다

T h a n k Y o u

[토론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방향

장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 문화예술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역할과 방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명실상부 국내 1호 문화도시 사업이다. 그리고 그 핵심 축은 자타공인 아시아문화전당이다. 최초의 문화도시 사업이 갖는 의미는 다양할 수 있지만, 문화도시 사업이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다른 문화도시 사업에 어떤 모범적인 것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떤 방식으로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략적인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문화전당 각론으로 논의하기 전에 기본으로 돌아가 문화도시 혹은 문화중심도시의 개념을 들여다보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아시아문화전당의 방향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 문화도시에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문화를 통한 도시발전’이라는 대명제는 큰 이견이 없을 듯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은 균형발전이라는 배경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균형발전이라는 의미도 궁극적으로는 한국의 도시가 서로 같이 고르게 성장하자는 의미이고, 단순히 지역의 문화서비스 불균형을 고려해 균형을 이루는 의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를 통해 도시 간 성장의 키 맞추기를 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처음에 추진하면 광주에 던진 메시지는 이와 다르지 않다. 광주는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유산이 풍부하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구상은 굉장히 희망적이지만, 동시에 1호라는 의미에서 부담도 있는 상황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15년 개관하였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핵심 축으로 ‘15년 개관 이후 아시아문화를 소재로 한 선형적 순환관계(연구부터 창작작 공유까지)를 표방하고 그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내대외적으로 이와 관련된 한계를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있다.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선형적 순환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칫 아시아문화의 선형적 순환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 자체로 문화예술의 개방적 특성과는 배치되는 폐쇄적인 구조가 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실제로 문화전당은 다소간 활력이 떨어진 상태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여의찮은 여건도 작용했겠다고 생각된다. 다만, 다른 국립문화시설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활력을 거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는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시아문화전당은 어떻게 회복되고 있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를 확인할 근거가 본 연구에는 존재하지 않아 이점에 대한 질문은 연구진에게 드리고 싶다.

한편, 외부 시각으로 보았을 때, 아시아문화전당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립문화예술공간으로서 정체성(브랜드)이 무엇인지 불분명하고, 공간의 활용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 부산의 영화의전당, 대구의 오페라하우스는 무엇을 하는지가 명확하다. 브랜딩이 되었다는 의미다. 각각 도시의 대표적인 예술, 축제의 핵심 거점공간이다. 그리고 이는 지역사회에 직간접적으로 문화적, 경제적 효과를 주고 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은 문화예술인, 광주시민은 물론 국민들이 봐도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정확히 이해하기 힘든 공간이다. 아시아 문화전당 내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를 소재로 선형적 선순환을 통한 문화예술의 생산, 처음 가보는 길이라 어려울 수도 있고, 아예 알 수 없는 목표를 세웠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에 천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시아성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본다.

다만, 연구에서도 제시되고 있지만,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성이라는 키워드뿐 아니라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도 기능해야 한다. 그간 아시아성의 모호성으로 인한 산출물의 한계, 아시아성에 초점을 맞추다 소홀해진 복합문화예술공간의 정체성 회복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이를 단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문제를 확인했으면 뭔가 시도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본 토론문에서 제안하고 싶은 방향은 아시아문화예술의 선형적 선순환과 아시아 선도 복합문화예술기관의 정체성을 다소간 분리하여 병렬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것이다. 그간 아시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복합문화예술기관으로서의 아시아문화전당의 이미지는 희미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시민, 국민과의 접촉면은 사실상 복합문화예술기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방향을 제3차 아시아문화중심도시기본계획에서 제안하고 있는 전당의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다소간의 분리다. 아시아문화예술의 선형적 순환 구조만으로 고수하여 지속하면 결국 연구부터 소비까지의 사이클이 다소 늘어지며, 이는 대국민 접촉면을 잃을 수밖에 없게 하는 구조다. 따라서 아시아소재, 아시아선도를 구분하고 병렬적으로 밀도 있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시아문화전당이 활력을 되찾고, 나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서 역할을 찾는 방향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속에서 아시아 보편적으로 공유 가능한 광주의 문화자원(전통문화, 소리, 음식 등)과 연계하여 아시아소재 문화예술을 아카이빙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작업, 그리고 문화기술, 시각예술 분야에서 아시아에서 문화예술 수월성을 선도할 수 있는 작업들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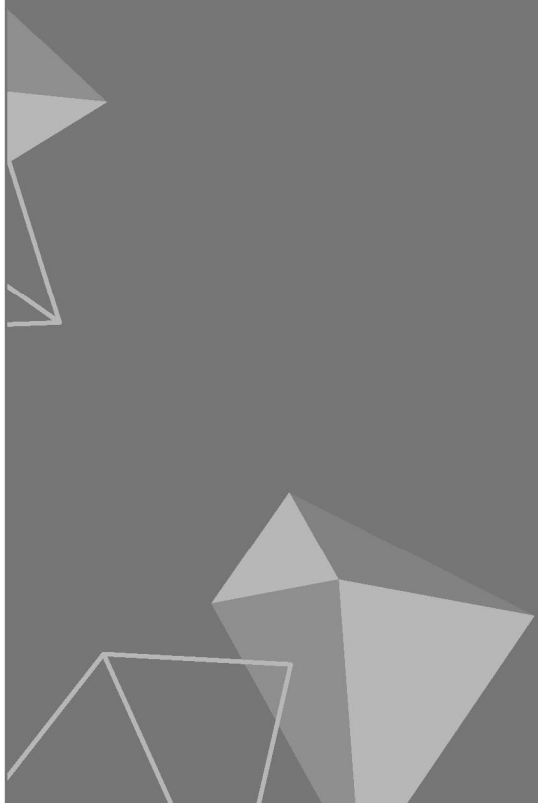
한편,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화예술기관이 됨으로써 지역에 스펠오버 효과를 주는 것이 가장 큰 방향이 될 수 있고, 지역의 다른 아시아문화도시사업에 문화전당이 축적한 역량을 공유하는 방식,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체 사업에서의 핵심 역할을 부여 받고 충실하게 수행하는 등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쪼록 이번에 문화전당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문화도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연구진이 노력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문화전당의 새로운 방향을 중심으로 재개관 이벤트가 충실히 준비되었으면 한다.

[토론 2]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아시아네트워크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최석규, 서울국제공연예술제 2020-26 예술감독, 아시아나우(AsiaNow) 대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네트워크 거점 역할 강화를 위한 제언

최석규 (예술감독,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아시아성(Asianess)에 대한 질문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의 기본 방향을 “아시아성(Asianess)” 으로 설정하고 ‘대안적 가치로서 동시대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 치유와 회복을 실천하는 또 다른 시선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시아의 국제교류의 시대적 변화에서 ‘아시아성’에 대한 주요 화두와 교류, 연대 방식을 다음과 같은 변화의 흐름으로 본다면, 첫번째 질문은 “대안적 가치로서 동시대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 치유와 회복을 실천하는 또 다른 시선”으로서 <아시아성> 은 구체적인 어떤 관점이고, 그것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아시아성과 교류방식으로 유효 한 것인가?

구분	1970-80년대	1990-2005	2005 - 2019		팬데믹 후
아시아성	- 탈식민지, 서구적 관점 - 아시아 전통과 정체성	- Asian Contemporary - 아시아 예술의 동시대성	- Contemporary Cross-cultural collaboration - Interdisciplinary/ Cross-sectional Approaches	아시아 유통	?
교류/ 연대방식	- 장르적 소규모 예술가 연대 - 예술가의 담론/교류적 연대	- 유럽적 관점으로 본 아시아 동시대 예술가 - 전통의 현대화	- 레지던시, 담론 찾기 - 리서치 랩 - 국제 공동제작	아트 마켓	?

두번째 질문은, 그러면 ‘아시아성’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어떻게 존재/ 발현/실현 될 수 있는가? 즉 비전과 큐레이션 방향성을 위한 담론적으로 존재 하는 <아시아성>과 창작·제작·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예술의 개별적/주관적 선택으로 <아시아성>에서 생기는 간극 은 어떻게 해소될 수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창의성(Creativity) = 사람 이다. 즉 창의적 관점과 방향성을 제시할 Artistic director, Creative Director, Curator and researcher 는 누구이고, 창작 작품을 만들어 낼 ACC Artists, ACC Associated Artists, ACC Partners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아닐까 한다.

아시아네트워크 거점 역할 강화에 대한 질문

아시아네트워크의 거점이 되기 위해 1) 아시아 권역, 예술커뮤니티 확대 및 협력 활성화, 2) 국제 문화 예술관련 협회, 기관 및 민간조직과의 협력 채널 확대, 3) ACC형 특화 ODA 강화, 4) 전사적 차원의 국제교류 정보 수집 관리 및 지원 을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ACC의 거대 공간, 거대 담론, 거대 자본 구조로 현재 아시아네트워크 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ACPC (대만, 한국, 일본, 싱가포르 주도의 아시아공동제작 네트워크), APP (아시아 프로듀서 플랫폼), ADAM(대만 주도의 아시아 라이브 아트의 레지던시 리서치 랩), MCH(매콩컬처허브)와는 구조와 기능이 매우 다르다. 그러므로 아시아네트워크의 거점이 되기 위해 ‘역할’을 논하기 이전에, 기본방향이 될 ‘아시아성’에 기초하여 아시아 네트워크의 ‘목적’에 대하여 다시 질문해 봐야 한다.

네트워크는 하나의 관점이다.(https://www.theapro.kr:441/kor/now/now_view.asp?idx=436) 이라는 글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는 ‘관점’, ‘목적의 구체성’, 그리고 작동원리가 될 ‘규칙’과 ‘유기성’을 정리 해야 한다.

포스트 팬데믹 시대, 아시아에서 예술의 이동성과 유통에 대한 질문

21세기 기술, 사회, 환경의 급변화는 공연예술의 창작·제작·유통 그리고 소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특히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은 공연예술 생태계, 국제유통, 이동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만들었다. 공연예술의 기본 특성인 관객과의 ‘직접 대면’이 불가능해지면서 작품을 소비하는데도 제약이 생겼고, 국내외로의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교류와 국제유통 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었다. 즉, 팬데믹 상황은 공연예술의 창작·제작·유통에 ‘안전’이라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새로운 혹은 다른 방식의 창작·제작·유통과 소비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러면 아시아 예술의 이동성/유통의 관점에서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공연예술의 새로운 창작·제작·유통 그리고 관객·소비 방식에 대하여 질문해야 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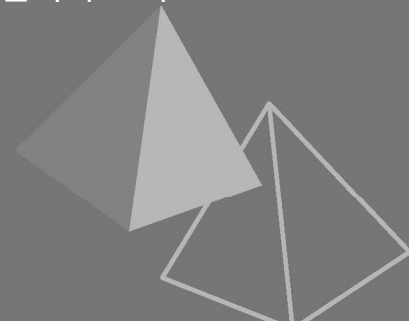
아시아에서 예술의 국제 이동성, 넥스트 모빌리티(Next Mobility)에 대한 질문이다. 이것은 첫 번째,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국제이동성, 투어링, 유통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고, 새로운 형식은 무엇인가. 두 번째, 기후변화와 위기에 대응하여 환경을 고려한 국제이동성은 무엇인가. 세 번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전환하고 있는 디지털 모빌리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인 것이다.

[토론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헤리티지의 적용

이종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산업학과 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헤리티지의 적용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산업학과 조교수 이종욱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전시, 공연, 교육 등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아시아의 문화, 예술사의 전개나 흐름, 유무형 문화유산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를 아카이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전당은 라이브러리파크와 아카이브 홈페이지를 통해 아시아의 사진, 근현대 건축, 소리와 음악과 같은 아카이브 자료를 서비스하고 있지만 그 활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카이브 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의 사례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유네스코 디지털 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에 따르면 광의의 디지털 헤리티지(digital heritage)는 디지털 형식으로 된 문화, 교육, 과학 및 행정, 기술, 법률, 의료 및 기타 종류의 정보를 포용하는 인간 지식 또는 표현의 자원으로 정의된다. 이중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는 것들을 협의의 디지털 헤리티지로 정의하는데 이는 역사적, 문화적, 미학적,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나 건축물, 물건이나 무형물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만들거나 문화유산의 아날로그 자원 형태를 디지털로 변환한 것을 일컫는다.

디지털 헤리티지는 태생부터 디지털 형식으로 구성된 유산인 본디지털헤리티지(born digital heritage)와 문화유산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만들거나 문화유산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한 디지털화된 헤리티지(digitized heritage)로 구분된다. 본디지털헤리티지는 전시콘텐츠, 게임 등 문화유산을 소재로 하면서 작가나 제작자의 창작이 가미되어 디지털 형식으로 생산된 것을 의미면서 대상이 복합적인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를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로 이야기 하기도 한다. 디지털화된 헤리티지는 디지털 복제된 사진, 형태 그대로 스캔된 3D 모델이나 도면 기반으로 모델링된 3D 모델로서 작가나 제작자의 창작이 미미하면서 아날로그 대상이 명확한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디지털 헤리티지를 문화, 자연유산의 해석, 보존, 보전을 위해 기술을 적용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존, 보전을 위해 디지털화하는 작업과 창작을 가미하여 해석하는 작업이 있다.

전당이 보유한 아카이브 자료들 아시아의 유무형 유산 관련 정보를 디지털로 만든 디지털 헤리티지에서 그 진정성의 전달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문화유산의 진정성이란 문화유산이 진실한 가치를 가졌는지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진정성의 판단요소에는 형태와 디자인, 재료와 물질, 용도와 기능, 전통, 기법, 관리체계, 위치와 주변 환경, 언어, 무형유산, 정신과 감정 등 내외부 요소가 존재한다. 20세기 후반부터는 문화유산의 진정성은 문화유산 지역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문화유산의 정체성을 느끼는 정도로 표현됨으로써 문화유산-관람객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물이자 상대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컴퓨터 기반의 문화유산 자료인 디지털 헤리티지와 사용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브 자료의 제공이 단순히 자료의 제공에 그쳐서는 안된다.

전당의 아카이브 자료들에 대한 접근 향상은 유네스코의 다양한 협약 및 권고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다. 유네스코는 디지털 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이를 보존, 관리, 활용하기 위해 2003년 디지털유산 보존에 관한 헌장을 통해 태생적 디지털 문화유산(born digital heritage)과 그에 대한 접근의 보장을 결의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는 유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특히 유네스코는 2006년 문화유산의 컴퓨터 기반 시각화를 위한 런던 헌장을 통해 여러 학문 영역에 걸쳐 문화유산의 시각화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원칙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헌장은 문화유산의 컴퓨터 기반 시각화에 있어 시행, 목적과 방법, 연구자원, 문서화, 지속가능성, 접근 원칙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특히 컴퓨터 기반 시각화의 성과물과 기록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유네스코는 2015년 디지털 형태를 포함한 기록유산의 보존과 접근에 관한 권고를 통해서 시청각 자료를 포함하는 기록유산의 보존 및 접근성

강화와 관련한 교류와 협력을 정하였다.

전당의 아카이브 자료의 디지털 헤리티지로서의 가치와 보존 및 접근성 강화에 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아카이브 자료의 보존, 활용,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 이야기 하고자 한다.

고화질 데이터 획득 기술인 기가 픽셀 이미징(Giga Pixel Imaging), 물리 기반 렌더링(Physics-based Rendering Technology), RTI(Reflectance Transformation Imaging) 등을 활용하여 고컬리티의 소스를 제작, 배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콘텐츠 제작자 간 자료를 구매, 판매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업적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콘텐츠 제작자들이 고컬리티의 소스를 얻는데 주로 사용하는 스케치랩(Sketchfab), 언리얼(Unreal) 마켓 플레이스, 유니티(Unity) 에셋 스토어 등에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당이 대상으로 하는 건축, 음악, 공연 등 다양한 아시아 문화자원들을 기록, 활용하기 위한 파일 포맷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BVH와 같은 모션데이터, FBX, C3D, OBJ, 3DS, MAX와 같은 3D데이터, JPG, PNG와 같은 이미지데이터, MP4와 같은 영상데이터의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영상데이터와 같은 경우 긴 내용을 분절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동작 단위, 영상 구성 단위로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자료들의 대한 주석(annotation) 작업과 새로운 영상 촬영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모션데이터의 경우 무용의 동작단위 정보 취득을 통해 대상의 이해를 쉽게 하고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메타버스와 같은 차세대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의 지원이 필요하다. 90년대 2D 이미지와 텍스트로 구성된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월드 와이드 웹(World Wide Web)이 도입되었다. 2000년대 이후 CAD/CAM, 시각효과, 비디오 게임 기반의 3D 그래픽과 시뮬레이션으로 구성된 가상세계가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20년부터 등장한 메타버스는 상호 연결된 3D 세계를 상세히 표현하기 위해 HTML 같은 것들을 필요로 한다. 또한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여 3D 세계 사이를 이동하기 위해 뷰어와 브라우저가 원활하고 일관적이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포맷으로 픽사(Pixar)의 USD(Universal Scene Description)와 3D 전송 포맷인 gITF가 개발, 배포된 바 있다.

사용자들이 아카이브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멘틱(semantic) 검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그 검색 결과를 시각화 해야 한다. 다양한 형식의 자료를 웹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웹 뷰어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연구, 교육, 체험 등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자료의 용량과 포맷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파일의 용량과 정보의 수준(Level of Detail)을 달리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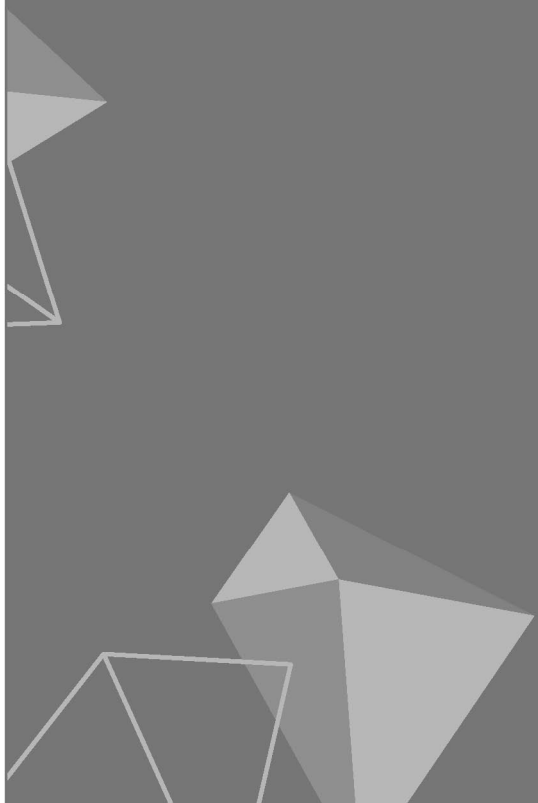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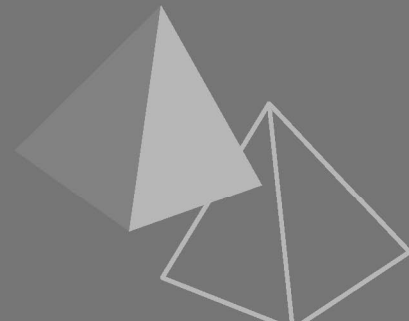
메타버스는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정보와 의견의 공유가 자유로운 플랫폼으로서 진정성을 포함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최적화된 플랫폼이다. 메타버스의 네트워크 기반 자료 공유의 특성과 디지털 아카이브로서의 정보 저장, 관리 특성이 컴퓨터 기반 시각화 자료의 지속가능성과 접근의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메타버스는 다언어, 다매체 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을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기술적인 환경에 처해있는 아시아 전역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헤리티지 적용방안에 대해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요약하자면 아카이브 자료의 통합과 활용을 위해서는 아카이브 대상 유형에 따른 데이터 포맷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안이 필요하다. 또한 아카이브 자료는 범용적 활용이 가능한 포맷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적합한 USD, gITF와 같은 포맷지원이 필요하다.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료를 개체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을 달리하여 제공해야 한다. 또한 아카이브 자료의 검색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의도에 따른 결과 및 관련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는 시멘틱 검색을 지원해야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아카이브 자료에 접근할 수 있게 하고 활용을 실증해야 한다.

[토론 4]

문화예술 융복합의 개념과 융복합 콘텐츠의 의미

류승완,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문화예술융복합의개념과융복합콘텐츠의의미

류승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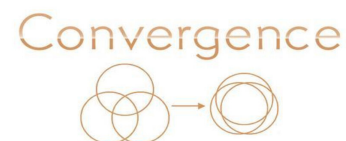
2022년 9월 2일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 (사)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회장

문화예술의 융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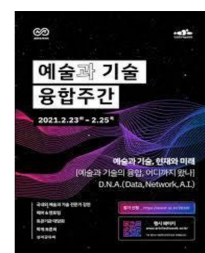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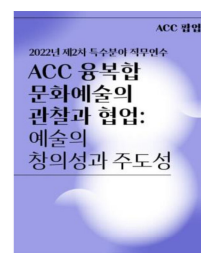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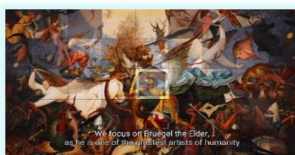
◆ 융복합이란?

- 융합(融合):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하여짐 → 이질적인 요소가 하나로 수렴되는 형태
 - Convergence, fusion, Consilience(통섭), ...
- 복합(複合): 두 가지 이상이 하나로 합침 → 이질적인 것들이 스스로의 특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형태
 - Complex, Compound, Integration, ...
- 융복합(融複合): 이질적 요소들이 모여 연결·혼합·변형·재구성·수렴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발(創發)하는 현상(신동희, 2014)



◆ 문화예술 융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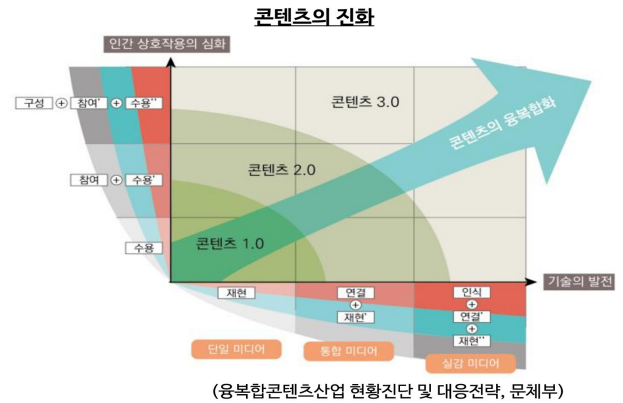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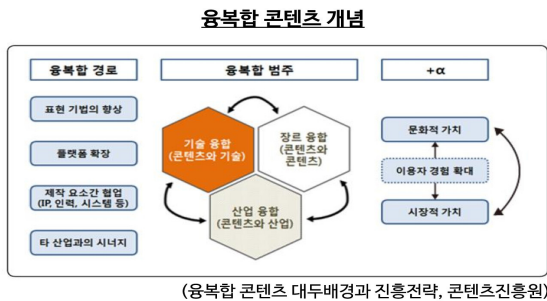
- 예술(ART)은 '기술'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techne'에서 유래
- 과학/기술은 예술에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



융복합 콘텐츠

◆ 융복합 콘텐츠

- 기존 콘텐츠 영역에 이질적인 요소인 기술, 타 장르, 타 산업 등의 요소를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콘텐츠진흥원)
- 기존 콘텐츠의 지식, 감성, 체험 영역을 확장하고, 각 영역의 융합을 통해 생산 및 수용 측면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한국문화관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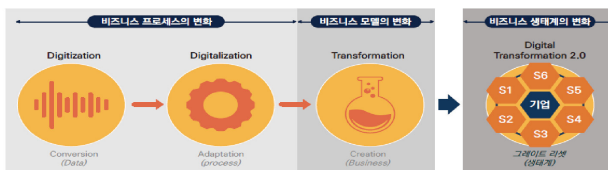


- ◆ 현재는 ICT기술을 이용한 **기존장르의 표현 강화 및 확장, 장르간 결합 및 협업 수준 (복합)**
- ◆ 기술/장르/산업간 융합에 의한 새로운 콘텐츠 창조 및 진화가 필요함
- ◆ 이질적 장르, 콘텐츠, 기술, 주변/관련 산업, 인간 니즈와 창조성의 결합이 요구됨

디지털대전환과문화예술융복합

◆ ICT 기술의 진화와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 디지털 대전환 단계 : ① Digitization → ② Digitalization → ③ 디지털대전환(DT) → ④ DT2.0(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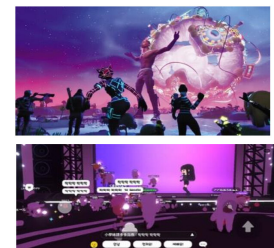


은행/금융업의 DT 단계(예시)

- 1단계: 거래원장의 전산화(전산센터)
- 2단계: 인터넷(모바일 뱅킹)
- 3단계(현재):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PAY, NFC, 가상화폐
- 4단계: 디지털 기술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금융비즈니스 환경

● 문화예술 융복합 측면

- 예술아카이브: 예술 자료 수집·평가·분류·보존 및 정보 제공 → **1단계 아날로그 자료의 디지털화 및 활용**의 단계
- 융복합 문화예술 콘텐츠 창제작: ICT기술 이용 창제작 보조, 표현 강화/확장, 협업 수준 → **2단계 초기 수준**
- 미디어/디지털 아트, DNA기반의 예술창조: 디지털/ICT기술 기반의 융복합 예술 창출/확대 → **3단계 초기 수준**



◆ 제안된 융복합 관련 신규 전략 및 방안(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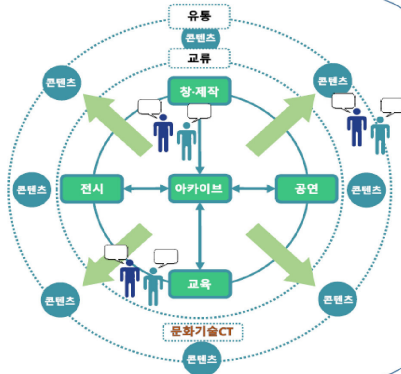
- 아시아 콘텐츠 원천소스 수집/생산
-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창제작
- 아시아 융복합 콘텐츠 성과 확산
- 이용자 친화적 아시아 콘텐츠 서비스 확대

◆ 기회요인

-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의 “Untact”, “Onact” 추세 확대
- 신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대응 【ACC 디지털 플랫폼】 추진에 따른 융복합 플랫폼 발전
-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관련 각 분야의 디지털 대응역량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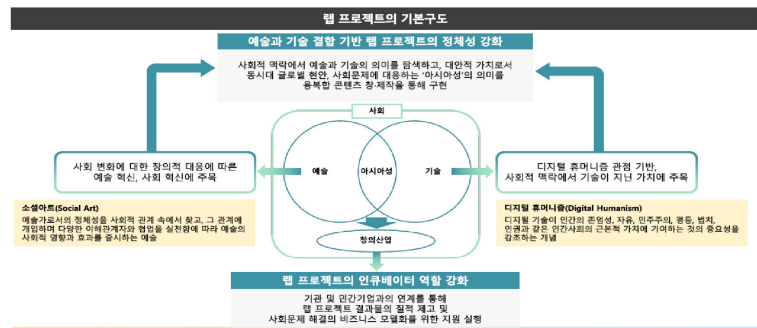
예술 X 기술의 융복합 콘텐츠 강조

- 예술과 기술 결합 작품 활동 지원, 예술산업 경쟁력 제고 강조
- 문화유산 디지털 대전환을 통한 보존·활용 기반 확대 강조



◆ 융복합 문화예술 기반조성과 창조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마련과 실행

- “예술+기술”융합을 위한 랩 조성 및 지원
- 중장기 문화예술 융복합 ISP/BPR 실행
- 중장기 문화예술 융복합 Roadmap 및 실행과제 도출, 달성방안 마련 필요



MEMO

[illegible]

MEMO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